

# 법을 가르치는 선생, 코델 숄튼(Codell Shulten) 모든 것에 질문하는 습관

☎ 인터뷰어 이국운 (한동대 교수)  
번역 발렌티어 김성범 사진 신효영



한동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코델 숄튼(Codell Shulten) 교수를 동 대학, 같은 과에 재직 중인 이국운 교수가 만났다.

**Question** 이국운 현재 한동대 법학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법을 공부하셨는데요, 미국이 아닌 아시아권에서 법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nswer** 코델 숄튼 아시아에 와서 가르치면서, 동양과 서양의 교육 및 학습 전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은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서양은 그리스 철학, 특히 교수법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서양에서 교육 받은 저는 동양의 전통을 인정하고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는 다른 전통, 환경에서 자라고 배웠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로 학생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학습공동체에서 학생들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성장한 학생과 서양의 전통에서 자란 교수가 서로 존중하며 돕습니다. 저처럼 서양 전통에서 자란 교수들은 학생들이 학습공동체에 다양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 그들을 돕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학생과 교수가 함께 존중과 공감의 관계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유교적 전통 방식에서 자란 교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교수법을 매력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 없는 자유로운 질문들을 통해 법이라는 딱딱하고 정형화된 텍스트를 살펴보게 하면서 학생들이 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세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 새로운 법학 교육 방법은 모든 것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도교수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기초적인 관찰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돕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균형 잡힌 방안과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교수들은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더 온전한 방법을 구상하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중시하는 지적 날카로움과 동양의 내적 인격 형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것에 소크라테스적 서양 사고방식을 통합함으로써 교육과 학습 환경 내에서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에서 미국 법을 가르치는 저의 경험으로 이 방식의 독특성과 적합성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이국운 미국 법의 정신적 뿌리는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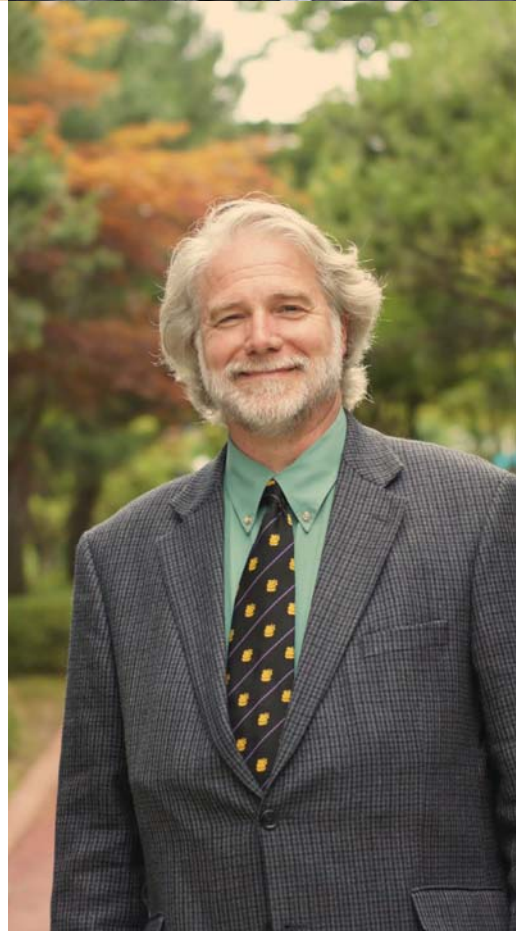
**Answer** 코델 슐튼 미국 법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발전하였습니다. 미국 법은 영국의 관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고대 로마의 법과 유대 율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율법의 영향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정의 집행과 더불어 관계에 근거한 자비를 미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정의와 자비의 필수적인 관계는 미국에서 법 집행 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정의와 자비의 완전한 관계는 기독교가 법정신의 독특한 미덕을 보여줍니다.

**Question** 이국운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코델 슐튼 법과 관련된 직종에서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타인을 섬기는 것을 소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변호사는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높고 숭고한 명분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의명분은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타인과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고 양측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에 관한 지식과 변호 능력을 충동원해서 별 이득을 보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지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며 타인을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자라야 최고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이국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교수님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으신가요?

**Answer** 코델 슐튼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만의 교육방식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활용했던 교육방식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법에 관한 특정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데 능숙해 지도록 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능력 있는 섬김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사고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사고와 생각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 일련의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이 질문에 답하면 저는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또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은 어느 순간부터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기 시작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의 사고방식은 한층 더 분석적으로 발전하고 날카로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진행하는 수업들을 마칠 때마다 학생들이 “모든 것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Question** 이국은 학생들과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교수인 저는 학생들과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인격과 사고 형성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저의 교내 교직원 아파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또한 매학기 한 번씩 주말에 학생들과 양양의 라브리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현재 탐구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했듯이,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Question** 이국은 마지막으로 교수님의 삶에서 부르심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코델 슐튼 저는 제가 한동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35년 전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면서 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법이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로스쿨에 들어갔고, 기독교 사립 교육기관과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로 활동한지 10년 만에 교직에 복귀하여 미주리와 세인트루이스 두 곳의 대학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의 한동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동대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 저의 삶에 그분의 부르심을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이국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